



고대안산병원뉴스

KOREA UNIVERSITY ANSAN HOSPITAL NEWS



NO.21

2010년 03 / 04월

발행인 : 최재현 · 발행처 :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 주소 : 안산시 단원구 고잔1동 516 · 전화 : 1577-7516 · Fax : 031)412-5659 · 홈페이지 : http://ansan.kumc.or.kr

새로운 의료환경 구축을 위한 첫걸음 시작되다 고려대 안산병원 본관, 별관증축 본격 돌입



1. 본관 3개층 수직 증축
2. 본관 1,2층 외래공간 확장 및 리모델링
3. 별관 연구동 1개층 수직 증축

고려대 안산병원이 본격적인 본관, 별관 증축에 박차를 가하며 환자 중심의 진료, 중증질환과 암 치료 중심병원으로써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미 안산병원은 첨단의료장비와 더불어 최첨단 방사선 암치료기 '리니악'을 도입해 명실상부한 암치료 전문 병원으로써 그 입지를 점점 넓혀나가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번 본관 및 별관 증축이 시작됨으로써 지역유일의 대학병원으로써 입지를 굳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증축의 시너지 효과, 공간의 확보 그 이상

안산병원이 작년 설계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가는 연구동 증축과 본관 증축, 외래진료 공간의 리모델링은 늘어나는 의료 수요를 충족 시킬뿐만 아니라 환자 중심으로 한 진료시스템의 변화를 주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사업은 부족한 진료 공간의 확보와 더불어 진료효율을 끌어 올리는 것이 그 목적이다. 진료효율이란 공간의 과학적 설계와 배치를 통해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다체계적 진료시스템을 구축, 국내에서는 쉽게 볼 수 없었던 유기적 협진을 통해 환자의 치료 성과를 높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중증도 질환과 암치료를 있어 환자별로 맞춤형 전문 진료를 실현할 계획이다. 즉 환자가 찾아가는 진료가 아닌 진정한 원-스톱(One-Stop)진료를 구현함으로써, 전문 의료진 1인 시스템에서 벗어나 환자의 진료를 다수의 전문 의료진이 실시해 치료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변수를 최소화하고 진료의 효율과 성과를 끌어올리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시스템의 구축은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공포인 암, 급증하고 있는 심장 및 뇌혈관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있어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한 암치료는 내·외과의 협진, 전문적인 수술 시스템, 방사선 암치료, 재활치료까지 고려한 처방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선진 의료시스템을 구축하게 될 것이다.

■ 증축과 진료체계가 시너지 효과 낼 것

이 같은 시스템의 가장 큰 변화의 축은 고려대의료원이 실천하고자 하는 '최고를 지향하는 인간중심의 참병원'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특히 진료 분야에 있어서 환자가 각 임상과를 찾아다니는 개념의 진료시스템이 증상별로 한 공간에서 모든 전문 의료진의 진료를 받는 One-Window, Non-Stop 진료를 구현하는 것이다. 또 질병에 따라 어떤 임상과를 가야하는지 고민하고 여러 임상과를 순차적으로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의 증상별 센터를 방문, 내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 여러 교수들에게 최고의 진료를 받으로써 환자의 이동을 줄이고 진료의 전문성을 더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센터와는 또 다른 개념의 협진시스템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병원을 돌아다니는 것이 아닌, 단일 센터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신(新)개념 의료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

이미 안산병원은 이 같은 외래 진료 시스템과 그에 따른 외래 재배치의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의 시스템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증축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 3면에 계속

Contents

2p 베스트헬스케어

4p 부서탐방
방사선종양학과

5p 클릭! 이사람
외과 김승주 교수

6p 헬스가이드 2
A형간염

7p 친절리더칼럼

7p 여행정보
대관령양떼목장

맵고 짠 우리 식습관으로 '국민 암'이 된 위암 적극적이고 빠른 서비스로 초기에 잡는다!



맵고 짠 식탁, 초고속 식사시간

위암은 일명 '국민 암'으로 불린다. 우리나라 인구 중 약 10만 명이 위암으로 병원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남성에선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고 여성에서도 유방암, 갑상샘암과 같이 여성 특유의 암을 제외하곤 발병암 1위를 차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08년 건강보험 암진료환자 분석에 따른 결과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서 위암 환자가 많은 이유로 음식을 맵고 짜게 그리고 급하게 먹는 것과 관련이 깊다고 말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식습관을 올바르게 기른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평생 가져오던 식습관을 단 한 번에 바꾼다는 것은 힘든 일이다. 위암은 뚜렷한 초기증상이 없고 사망률이 높은 반면 일찍 발견하면 완치율이 높은 편이다. 이 때문에 위암 예방을 위해선 내시경과 같은 직관적이고 적극적인 예방책이 필요하다. 고려대 안산병원은 '국민 암'인 위암 치료를 위해 소화기 내시경 전문의와 외과 전문의들의 다양한 협진으로 환자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위암 주범은 위염! 위염 잡는 내시경

우리나라 사람 8명 중 1명은 위염에 시달리고 있다. 위염이 있다고 해서 꼭 위암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고려대 안산병원 소화기내과 이상우 교수는 "위염이 있는 사람

에게서 위암이 많다는 것은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위염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위암의 가장 큰 위험인자를 안고 사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며 위염의 적극적인 치료를 강조했다. 이러한 위염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는다면 위암의 위험성에 그대로 노출되는 것과 같다. 이상우 교수는 ▲ 속 쓰림이 2회 이상 발생하고 ▲ 구취가 심하며 ▲ 위염과 위암의 가족력이 있다면 병원을 찾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을 것을 권한다.

위에서 이상이 있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속 쓰림 증상을 가장 흔하게 느낀다. 보통 속이 쓰린 증세는 위에 통증이 발생하거나 갈비뼈 아래쪽에 바늘로 찌르는 듯 한 증상이 동시에 나타난다. 이러한 증상은 식사 또는 음주 후에 발생한다. 속쓰림 증상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면 병원을 찾아 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이상우 교수는 "위염은 위 내부에 염증이 발생한 상태에서 외부에서 자극이 계속 주어지면 더욱 악화 될 수 있다"며 "초기에 검사를 통해 치료를 하면 쉽게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심한 구취도 위염, 위궤양의 신호일 수 있다. 보통 입냄새는 치아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한다. 하지만 위산이 역류하거나 위염이 심한 경우에도 입냄새가 심하게 날 수 있다. 암의 경우 가족력에 따라 그 위험도가 달라짐으로 가족 중 위암 환자가 있거나 위염, 위궤양 등으로 병원을 자주 찾는다면 주기적으로 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이상우 교수는 "보통 위내시경 검사는 가족력이 있는 경우 40

세 이상이면 2년에 한 번씩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안산병원 내시경실은 소화관운동검사실과 초음파실을 구비해 기존의 검사와 접목, 소화기계통의 형태적 진단뿐만 아니라 기능적 진단도 수행하고 있다. 또, 2007년 2월에는 안산지역에서 최초로 캡슐내시경을 도입해 안산지역을 넘어 경기 서부권 지역주민에게 선도적인 내시경 검사와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복강경 수술로 후유증 최소화

국민 '암'인 위암은 그 환자 수의 증가만큼 수술적 치료 또한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다. 우리나라 외과 의사들이 하는 위암수술이 세계적인 표준이 될 만큼 위암 수술에선 세계 최고를 자랑한다. 안산병원도 최고의 의료진이 포진되어 위암과의 싸움에서 선봉을 서고 있다. 안산병원은 김승주, 박성흠, 김종한 교수가 연간 약 100여건에 가까운 위암 수술을 하고 있다. 또 복강경 수술을 위한 숙련된 수술 전담 간호사도 배치되어 있다.

최근 들어 국민 개인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검진센터를 직접 찾는 횟수가 늘었고 정부에서도 무료 암 조기 검진 사업을 펼치면서 초기 위암 진단을 받는 환자들이 늘었다. 이 때문에 복강경을 이용한 위암 수술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다. 복강경수술이란 환자의 배를 완전 절개하지 않고 0.5~1.0cm 크기의 작은 구멍을 내고 그 구멍을 통해 시술에 필요한 카메라 등 각종 도구를 넣고 시행하는 수술로 '최소침습수술'로 불린다. 복강경 수술은 기존 개복 수술에 비해 후유증이 적고 회복 기간이 짧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고려대 안산병원 상부 위장관외과 박성흠 교수는 "초기 위암에선 복강경 수술이 후유증도 적고 회복이 빨라 많이 시행되고 있는 편이다"라며 "보통은 수술 후 2달 정도의 적응기간을 거치면 수술 전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고려대 안산병원은 수술적 치료와 더불어 첨단 방사선치료기인 리니아를 이용한 방사선 치료를 병행함으로써 보다 완치에 다가 설 수 있는 확률과 기간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실제로 2009년 12월까지 고려대 안산병원에서 리니아 치료를 받은 104명의 환자 중 20명이 위장관 관련 암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좋은 결과를 얻었다.

위암예방을 위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 바로 올바른 식습관 개선이다.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위암에 걸리는 가장 큰 원인은 맵고 짠 음식을 자주 섭취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식생활 개선을 위해서 맵고 짠 음식, 부패한 음식, 탄 음식 등은 섭취를 자제 한다. 대신 비타민 A와 C, 베타카로틴이 많이 함유된 야채와 과일을 자주 먹는 것이 좋다. 우유를 포함한 유제품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위암 예방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은 정기적으로 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다. 특히나 위암으로 발전 할 수 있는 위염 등의 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내시경 검사를 받아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제거하는 것이 좋다. 🍷

▶ 1면에 이어

현재의 시스템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증축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전체 외래 공간에서 환자 증상 중심의 센터 확대 재배치를 통해 상호 연관되는 의료진이 유기적인 진료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아끼지 않는 것이다.

■ 다학제적 협진 따라 암환자 늘어난다

최재현 안산병원장은 “증축은 공간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1cm의 차이를 통해 10년을 앞서 가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환자를 중심으로 한 시스템을 갖추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한다면 그것이 바로 선진 의료를 실현하는 것이며, 고려대 안산병원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재에도 다학제적 협진, 특화 진료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여러 모임들이 구체적인 논의와 함께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피부과 김일환 교수를 중심으로 악성 흑색종의 치료를 위한 흑색종 클리닉은 이미 영상의학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등과 함께 연구 활동을 시작했으며, 2009년 문을 연 혈관센터 역시 흉부외과, 순환기내과, 신경외과 등을 중심으로 환자 치료를 위한 모임을 열어나가고 있다. 소화기내과와 간담췌외과, 대장항문외과의 협진 시스템, 유방내분비외과와 성형외과의 유방즉시재건술은 현재에도 실질적인 치료 성과를 거두고 있다. 소화기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용종제거술만 1년에 1만 2천 건 이상, 각 전문 분야별 암 수술 역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다학제적 시스템과 최상위급 의료진으로 구성된 의료 인프라가 지역에 알려진 결과라 할 수 있다.

■ 계속되는 장비도입, 진료수준 높여

안산병원의 변화 중 또 한 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의료 장비 도입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작년까지 PET-CT를 비롯해 3.0T MRI, 첨단 방사선 암치료기 리니악을 도입했고, 올해에도 추가적인 장비도입을 통해 전문적인 진료 환경을 구축해갈 예정이다.

특징적인 것은 환자의 수요를 맞추고 ‘뇌졸중 A등급 병원’을 뛰어넘는 광역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최신 장비들을 추가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첨단 CT장비와 MRI 장비가 추가로 도입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진료 대기 시간을 단축시킬 뿐만 아니라 응급상황에서도 빠른 검사를 가능케 할 예정이다. 또한 급증하고 있는 뇌혈관, 심혈관 질환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순환기내과와 흉부외과 교수들이 응급실 당직을 실시함은 물론 실시간 영상의학 판독시스템을 확립하고 지역 병의원과 당직 교수와의 직통전화를 가설하여, 장비뿐만 아니라 진료의 질에 있어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첨단진료 체계의 인프라를 확립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스템은 혈관질환과 관련된 응급환자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선제적 진단 및 치료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환자의 생존율을 극대화 하는 효과를 가져 온다. 즉 기존 응급의료체계에 있어서 발빠른 대응이 필요한 혈관질환에 24시간 교수급 의료진의 당직 시스템을 구현함과 동시에 MRI, CT 등 영상의학과 교수의 판독을 1시간 이내 실시함으로써 응급환자치료에 획기적인 진일보를 가져올 것이다. 📌

헬스가이드 1

봄철운동 ‘아자!’ 하고 무리하다 ‘아이쿠’ 올라가는 기온에 맞춰 운동량 조절해야

봄이 되면 우리 몸은 신진대사가 증가하고 활동량이 늘어 에너지요구량 또한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3월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로 큰 일교차 때문에 생체리듬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된다. 또 인체의 저항력과 면역성도 떨어져 각종 질병에 쉽게 노출된다. 봄철 가벼운 운동은 움츠렸던 근육을 펴주고 혈관의 탄력성을 높여 신진대사에 큰 도움을 준다. 하지만 무리한 운동은 우리 몸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심혈관계질환과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보다 철저한 운동계획이 필요하다.

‘자전거? 마라톤?’ 나에게 맞는 운동 고르기

겨울 동안 우리 몸은 활동량이 작기 때문에 다른 계절에 비해 근육이 약해지고 골밀도가 감소되어 관절과 근육의 운동 범위가 작아져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봄철 운동은 부담 없이 가볍게 할 수 있고 심폐기능을 향상시키며 체지방 소모를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이 좋다. 빨리 걷기, 수영, 자전거타기, 등산 등이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이다.

연령대별로 맞춤 운동을 살펴보면 10대와 20대는 줄넘기, 달리기, 축구, 농구 등이 체력증진과 유지에 도움이 된다. 특히 10대는 줄넘기, 농구 등 성장판을 자극해 주는 운동이 성장에 도움을 준다. 30대는 바쁜 직장생활 속에서도 틈틈이 그리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이 좋다. 하루 30분 빨리 걷기, 계단 오르기 등은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몸을 자극 시킬 수 있는 운동이다.

40대 이상의 세대들은 지나치게 강도 높은 운동을 피해야 한다.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만성질환자들의 지나친 운동은 몸에 ‘독’

이 될 수 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3월에 협심증 환자가 연평균 4.7%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대 안산병원 순환기내과 안정천 교수는 “봄이 시작되는 3월에 협심증 환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겨울 동안 체내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되고 다른 계절에 비해 운동량이 줄어 든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무리한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안 교수는 “심혈관계 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기온이 올라간 낮에 강도가 낮은 스트레칭이나 걷기 운동부터 시작해야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며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운동 강도 또한 높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당뇨 환자는 운동 전 자신의 혈당치 측정을 통해 250 이상이면 운동을 피하는 것이 좋다. 운동으로 당대사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슐린주사를 맞고 있다면 주사를 맞은 후 1시간 후부터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운동 중 정신이 멍해지거나 시야가 흐려지면 저혈당에 빠져 혼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볍게 주스나 사탕을 섭취하면 도움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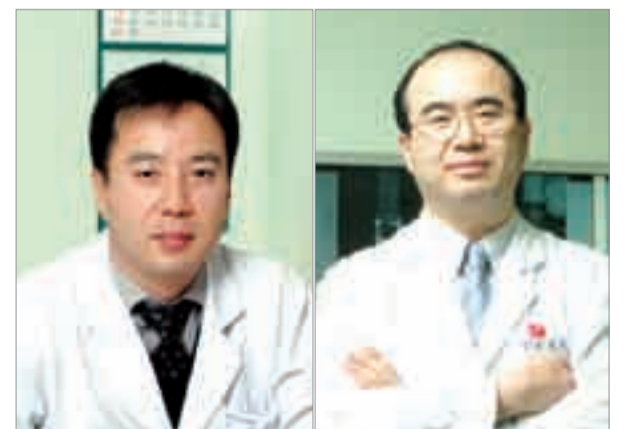
스트레칭은 필수! 관절, 인대 부상 조심!

본격적인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겨우내 굳어 있던 근육과 관절을 풀어 주는 스트레칭이 필수다.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의 유연성이 좋아지면 근육 파열 등 손상을 예방할 수 있고 염좌 등의 관절 상해도 막을 수 있다. 단, 근육이 이플만큼의 강한 스트레칭은 피하고 가볍게 ‘당긴다’는 느낌이 날 정도로 약 10초간 해주는 것이 좋다. 운동 후에도 마무리 스트레칭을 통해 뭉쳐있는 근육을 풀어줘 근육통을 예방하고 긴장된 몸을 천천히 이완시켜줘야 한다.

봄철운동 중 무리한 욕심은 척추나 관절, 인대 등에 과부하

를 일으켜 근육통, 아킬레스건 파열 등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나 자전거타기, 달리기, 등산 등에서 이러한 부상이 많다. 자전거를 오랜 시간 타게 되면 지속적으로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기 때문에 허리에 요통이 발생한다. 손잡이를 통해 전달되는 충격은 손, 손목, 팔 부위의 부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평소 허리 운동을 통해 허리 근육을 강화시켜 주고 30분 혹은 1시간 운동 후 휴식시간을 정한 후 자전거를 세우고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근육이 굳어지는 것을 막아 준다. 또, 헬멧, 고글 등 안전장비를 갖춰 혹시나 있을 사고에서 골절 부상을 예방해야 한다.

달리거나 등산은 누적된 피로로 인한 피로골절을 조심해야 한다. 자칫 고질병으로 발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한 운동 보다는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봄철 산에서 햇빛이 잘 들지 않는 음식은 아직 얼음이 녹지 않은 곳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해진 등산로로 다니고 낙엽 등으로 가려진 길은 등산스틱으로 치우면서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



도움말 | 고려대 안산병원 순환기내과 안정천 교수, 정형외과 박정호 교수

칼 없이 암세포를 공격한다 고려대 안산병원 방사선종양학과



현대인에게 암은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 인식되고 있을 만큼 대단한 공포의 대상이며 현대의학이 정복해야 할 과제 중 하나이다. 다양한 암치료법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그 중 방사선종양학과는 방사선을 이용하여 악성종양, 즉 암을 치료하는 분야를 말한다. 방사선이 암치료를 이용한 이래로 수많은 방사선 암치료기기들이 만들어졌고 발전해 왔다.

일반적으로 환자들은 방사선치료를 권유 받으면 '머리카락이 빠진다', '살이 썩어들어 간다' 등의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이는 방사선치료를 대한 환자들의 오해에서 오는 것들이다. 방사선치료를는 제한적이고 정밀한 치료이다. 순간적으로 큰 힘을 내는 원자폭탄과는 달리 암세포가 있는 부분에만 에너지를 집중해 암세포를 공격하게 된다. 따라서 방사선치료를 받지 않는 세포들은 방사선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하지만 두경부암을 치료할 경우 부득이하게 머리부분에 방사선을 쬐어야하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방사선치료기기에는 토모테라피, 사이버나이퍼 등 자신만의 특징을 가진 여러 가지 기기들이 있지만 고려대 안산병원 본관 지하1층에 자리한 고려대 안산병원 방사선종양학과는 최첨단 암치료기기인 리니악(Clinac iX)을 운영하고 있다.


리니악(Clinac iX)은 3차원 입체영상과 고에너지의 방사선만을 이용해 몸 안에 있는 암세포만 집중 공격하고 주위의 정상조직에는 방사선량을 분산시키는 '세기조절 방사선치료'를 통해 후유증을 최소화 하는 장점을 지닌 최첨단 암 치료장비이다.

리니악을 이용한 암치료는 방사선종양학과 교수의 진료에서부터 시작된다. 리니악치료가 결정되면 전 스텝이 모여 정확한 환자정보 파악을 위해 모의치료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우선 치료가 용이하도록 부위에 따라 적절한 자세를 결정하고, 움직임을 제한할 고정용구를 제작하며, 환자의 질병과 전신 상태 파악을 위해 치료 받을 부위에 대한 투시 영상을 촬영하거나 컴퓨터 단층촬영(CT)을 시행하게 된다.

이로부터 얻어진 투시 영상 혹은 전산화단층촬영 모의치료장치(CT Simulator) 영상과 함께, 여러 진단 영상(MRI, PET)을 종합한 다음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산화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되며, 주위 정상 조직에 전달되는 방사선을 최소화하면서 종양에 가능한 한 많은 방사선이 전달되도록 방사선의 에너지, 방사선 조사 방법, 방사선량 등을 결정한다. 모든 계획을 세운 후 환자는 주 5회, 5~20분 가량(1회)으로 30회정도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된다.

방사선종양학과 윤원섭 교수는 "후유증과 부작용이 적은점 등이 알려지면서 작년 9월에 가동을 시작한후 3개월 만에 100례를 돌파할 정도로 많은 암 환자들이 리니악 치료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진료의뢰 후 24시간 이내에 환자의 상태와 특성에 맞는 진료와 치료계획을 수립될 수 있도록 지역 의료기관들과 원활한 협진체계를 운영하여 기다리는 시간을 최소화 하고 신속한 환자치료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조급한 환자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더 배려하려는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한편 정세영 방사선사는 "한번 치료가 시작되면 2개월간 매일 환자를 마주하다보니 치료가 끝나갈 무렵에는 가족 같은 정을 나누게 된다"고 말해 환자에 대한 애뜻함 까지 엿보였다.

방사선종양학과는 구성원들간의 유대관계도 특별하다. 안암, 구로병원과 활발한 정보, 학술 교류를 통한 협력으로 최고의 의료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매년 송년회 및 각종 행사를 공동 유치하는 등 끈끈한 정를 이어가고 있다. 

글 | 원내기자 고재철



안산병원 교직원 끝전성금으로 지역사회에 공헌



안산병원은 2월 10일 교직원들의 참여로 조성된 '끝전성금'으로 생활용품과 가구 등을 구입 노인요양시설과 외국인 노동자 보육시설에 전달했다. '끝전성금'은 안산병원 교직원들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자신의 급여 및 상여 실지금액의 1천원 미만 금액을 기부해 마련되었다. 차상훈 진료부원장, 이종길 경영관리실장, 김정숙 간호부장, 서성구 총무팀장 등 안산병원 교직원들은 무연고 노인시설인 사랑의 선교수녀원 '평화의 집' (고잔동)과 갈릴레아 어린이집(원곡동)을 직접 방문해 물품을 전달했다. 차상훈 진료부원장은 "지역 유일의 대학병원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작은 정성이나마 설을 맞이해 큰 기쁨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사랑의 선교수녀원 조셀리아 수녀는 "안산병원 교직원들이 부담 없이 개인이 내고 그 것을 하나로 모으니 큰 힘이 되는 것 같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과 함께 발전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산병원은 2009년 하반기 MBO 최우수부서에 이비인후과를 우수부서에 소화기내과와 신장내과가 각각 선정되었다. 이비인후과는 별도의 안내게시물을 만들어 고객들에게 안내하는 등 다양한 창의적 활동이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부서에 선정되었다. 의무기록 우수부서에는 이비인후과가 상·하반기 모두 최우수부서에 선정되었다. 상반기 우수부서에는 외과와 안과가 하반기 우수부서에는 흉부외과와 성형외과가 각각 선정되었다. 고객들로부터 가장 칭찬을 많이 받은 VOC(Voice of Customer, 고객의 소리)친절직원 6명에는 성화정 교수(중앙혈액내과), 장진아 책임간호사(63병동), 김혜원 책임간호사(외래 신경외과), 서민지 간호사(81병동), 김용천 주임방사선사(영상의학과), 박혜순 일반업무원(영양팀)가 선정되었다.

친절리더팀 결의선포식 가져



안산병원 친절리더팀이 2010년 '뜨거운 열정과 가슴 뛰는 에너지를 전파하는 친절리더팀'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2월 17일 본관 2층 대강당에서 친절한 안산병원을 위한 결의선포식을 가졌다. 결의선포식에는 최재현 병원장, 차상훈 진료부원장, 이종길 경영관리실장, 김정숙 간호부장 등 병원 주요보직자, 이은순 친절리더팀장 등 친절리더들과 교직원들이 참석해 대강당을 가득 메웠다. 최재현 병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친절이란 교직원 개인의 확고한 전문지식을 혼합해 환자의 삶의 질을 높여 주는 것"이라며 "오늘 결의선포식을 통해 친절리더팀이 보다 친절한 안산병원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솔선수범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은순 팀장은 2010 활동계획 발표를 발표했고 마성을 부팀장(재활의학과)과 장선경 책임간호사(외과중환자실)가 대강당에 모인 교직원 앞에서 친절리더 활동 결의 선서를 했다. 선서 후, 친절리더팀은 새롭게 제작한 친절리더 테마송을 울동과 함께 부르며 행사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또, 희망의 비행기 날리기를 통해 안산병원 전 구성원에게 친절 메시지를 전파했다.

안산병원 흉부외과 박형주 교수가 2월 25일 KBS1 라디오 건강플러스에 오목가슴수술 '명의'로 출연해 환자와 자신에 관한 진솔한 이야기를 전달했다. 박형주 교수는 '이시대의 명의' 코너에 이춘현 KBS 의학전문기자과 함께 오목가슴수술법인 '너스수술법'을 국내 최초로 도입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술건수를 자랑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이야기 했다.

박형주 교수 KBS1 라디오 '명의' 출연



안산병원 흉부외과 박형주 교수가 2월 25일 KBS1 라디오 건강플러스에 오목가슴수술 '명의'로 출연해 환자와 자신에 관한 진솔한 이야기를 전달했다. 박형주 교수는 '이시대의 명의' 코너에 이춘현 KBS 의학전문기자과 함께 오목가슴수술법인 '너스수술법'을 국내 최초로 도입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술건수를 자랑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이야기 했다.

2009년 결산 각종 시상 이어져

안산병원은 2009년 하반기 MBO 최우수부서에 이비인후과를 우수부서에 소화기내과와 신장내과가 각각 선정되었다. 이비인후과는 별도의 안내게시물을 만들어 고객들에게 안내하는 등 다양한 창의적 활동이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부서에 선정되었다. 의무기록 우수부서에는 이비인후과가 상·하반기 모두 최우수부서에 선정되었다. 상반기 우수부서에는 외과와 안과가 하반기 우수부서에는 흉부외과와 성형외과가 각각 선정되었다. 고객들로부터 가장 칭찬을 많이 받은 VOC(Voice of Customer, 고객의 소리)친절직원 6명에는 성화정 교수(중앙혈액내과), 장진아 책임간호사(63병동), 김혜원 책임간호사(외래 신경외과), 서민지 간호사(81병동), 김용천 주임방사선사(영상의학과), 박혜순 일반업무원(영양팀)가 선정되었다.



원장님이 쓴대, 해피피자데이

최재현 고려대 안산병원장이 2009년 안산병원 역사상 최대매출을 기념해 전 교직원들에게 피자 선물을 전달했다.

클릭! 이사람

아이티지진 피해를 누비다 외과 김승주 교수



지난 1월 지구 반대편의 한 가난한 나라인 아이티에서 비보가 날아 왔다. 수도 포트프랭스를 포함한 아이티 국가 중심 지역에 사상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것이다. 대통령궁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살 집을 잃었다. 외신들은 연일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10만명이 넘을 것이라는 예측을 쏟아 내었다. 고려대의료원은 급히 아이티지진 의료지원팀을 구성하고 아이티로 급파했다. 이 중심에는 김승주 단장(안산병원 외과)이 있었다. 김승주 교수를 만나 아이티 지진피해자 구호활동의 뒷 이야기들을 들어 보았다.

고려대의료원 의료지원팀은 아이티 입성부터가 쉽지 않았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아이티로 가는 직항편이 없었다. 미국 애틀랜타와 마이애미를 거쳐 아이티와 접경국인 도미니카공화국으로 먼저 들어가 국경이 개방되는 시간을 기다렸다. 김승주 교수는 "처음부터 순탄치 않았다. 도미니카공화국에 도착해서 진료에 필요한 짐을 2개 잃어버린 것을 알고 항공사에 이야기를 해서 다음날 아침 첫 비행기로 짐을 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아이티로 들어가는 국경은 하루에 2번 개방되었다. 아이티로 가는 고속도로는 고속도로라 하기보다 우리나라 시골의 2차선 국도와 같았다. 간신히 아이티 수도인 포트프랭스에 도착해 진료를 볼 수 있었다. 김 교수는 "국제학교의 교실을 빌려 숙소로 쓰고 한 개인병원에서 진료를 시작했다. 모든 환경이 열악해 우리가 진료환경을 하나하나 만들어야 했다"고 말했다.

환자들은 높은 기온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부병 환자, 골절 환자와 어린 환자들이 많았다. 의료지원팀은 아이티에서 처음으로 제왕절개 수술도 시행했는데 당시 수술환

경은 조그마한 등산랜턴으로 수술 부위를 비칠 만큼 열악했다. 하지만 의료지원팀은 제왕절개 수술 외에도 탈장수술과 골절수술 등 아이티 의료진들이 시행하기 힘든 많은 수술을 직접 집도했다. 또, 약 5일간의 진료기간 동안 1천 명이 넘는 환자들을 돌보았다. 김 교수는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이 많았지만 수술실과 수술에 필요한 장비가 없어서 시행하지 못했다"며 "보다 철저한 준비를 해야 했는데 많이 아쉬웠다"고 말했다.

아이티에는 고려대의료원뿐만 아니라 16개국에서 많은 의료지원팀들이 들어와 구호활동을 펼쳤다. 하지만 대부분은 간단한 진료와 이에 맞는 약을 주고 오는 것이 전부였다. 김승주 교수는 "우리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장비나 지원이 아니더라도 외과적 수술을 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나라 위상에 걸 맞는 해외 구호활동을 펼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아이티를 다녀 온 후 필요한 것들에 대해 말했다.

글 | 원내기자 김준엽(재활의학과)

진료협약업체탐방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초석 보성파워텍



보성파워텍(대표 임재황)은 1970년 설립 이래 전력산업의 초석인 각종 전력기자재를 생산, 판매하는 전력기자재 종합 생산업체로서 우리나라 산업발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전력산업과 그 맥락을 함께하며 발전해 온 기업이다.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반월공단에 위치한 보성파워텍은 2001년 고려대 안산병원과 사원들의 건강검진을 시작으로

진료협약을 체결하여 협약관계를 맺은 기업이다. 보성파워텍은 1991년 부설연구소를 설립한 이래 다양한 전력기자재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전력산업 현대화에 적극 이바지했다고 자부하는 협약업체이다.

보성파워텍은 낙뢰방지용 지지대나 덮개류 등 배전제품에서부터 스위치 개폐기 등 중전기제품, 송전철탑과 발전소용 철탑 등의 전력기자재를 전문으로 생산한다. 최근 들어 국내 원자력 및 화학발전소는 물론 칠레, 방글라데시, 필리핀 등 해외 발전소에 자재를 공급하면서 글로벌 전력기자재 전문기업으로 발돋움 했다. 초기에는 낮은 부가가치의 제품을 연 3 천 톤 생산하는 데 머물렀지만 현재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고부가가치 제품을 중심으로 연 5 만톤 이상 생산하는 규모로 커졌다. 또한 국내 최고의 기술수준에 만족하지 않고 외국의 우수기업인 아사히전기, 키포전기, ABB SACE, 레이컴, 버트렐 등과 기술제휴를 맺고 그들의 선진기술을 지속적

으로 벤치마킹하는 한편 국내외의 KS, NT, ISO9001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앞선 기술력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최근에는 철구조 분야의 수주물량 확대 및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충북 충주시에 2만 3천평 규모의 철구조물 전문 제작 공장을 매입하여 전력철구조사업과 건설분야 철탑사업을 융합함으로써 사업다각화를 통한 외형성장은 물론 수익성 향상도 적극 도모하고 있다.

보성파워텍 임재황 대표는 “앞으로 보성파워텍은 지난 30여년간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세계시장 어디에 내놓아도 최고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일등 제품으로 보답하며, 무한한 연구 노력을 통하여 초일류 기업으로서의 성장기반을 지속적으로 다져 나아갈 것”이라며 우수한 기술력과 자부심을 바탕으로 전력기자재 분야에서 최고의 신뢰받는 기업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글·사진 | 원내기자 강봉구(산업의학과)

헬스가이드 2

감기몸살증세와 비슷한 A형간염, 우습게봤다간 큰 코 다친다!

어느 날 근무를 하다가 몸살증세가 나타난 박 모씨(32세).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감기려니 생각한 박 씨는 집 근처 약국에서 감기약을 지어먹고 말았다. 3일이 지나도 몸살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병원을 찾은 박씨는 A형 간염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간수치는 이미 2천을 넘었다는 결과에 충격을 받았다. 바로 입원을 하고 치료를 받고 있는 박 씨는 만약 병원을 찾지 않았다면 하는 생각에 아찔하다.

작년 질병관리본부의 통계에 따르면 A형간염 환자는 1만 5천명이 넘었으며, 제작년 대비 2배가 늘어났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도 A형간염에 대한 증세나 감염 경로 등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너무 깨끗해도 문제?!

일명 ‘유행성 간염’이라고 불리는 A형간염은 감염 바이러스의 한 종류인 A형간염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으로 주로 급성간염의 형태로 나타난다. A형간염은 B형이나 C형간염과 같이 혈액을 통해 감염되는 것이 아니라 입을 통해 먹는 먹거리나 감염된 환자와의 접촉을 통해서 전염된다. 위생상태가 불결할 때 감염되기 쉬운데 조개 등의 어패류를 날 것으로 먹거나 오염된 물을 끓이지 않고 그냥 먹었을 때, 인분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과일을 깨끗한 물에 제대로 씻지 않고 먹었을 때도 전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A형간염 발생 증정도 ‘위험국’으로 분류돼 있다.

어려운 시절을 보냈던 40~50대 이상은 어렸을 때 A형간염에 자연 감염돼 가벼운 감기처럼 앓고 지나가면서 90% 이상이 항체를 보유하고 있어 급성간염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최근 사회 전반적인 위생관리가 점점 깨끗해지면서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경우가 적어 어린이와 청소년의 A형간염 항

체 보유율이 10% 이내로 낮아져 간염에 대한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10대 후반에서 30대의 감염 위험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너무 깨끗하게 자라는 것도 문제인 것이다. 게다가 A형간염은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유·소아 필수 예방접종으로 지정되지 않아, 점차 감염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젊은 층에서 A형 간염의 위험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건강하다는 생각에 감기몸살처럼 지나칠 수도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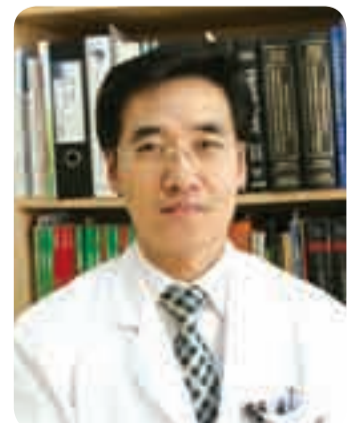
전염성 높은 A형간염, 생명 위험

A형간염은 감염된 후 15~50일 정도의 잠복기를 거친 후 전구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 시기가 가장 전염이 잘 되는 시기이다. 이는 황달 발생 전에 더 많은 바이러스가 나오기 때문인데, 자신이 감염에 걸렸는지 모르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옆 사람에게 쉽게 전염시킬 수 있다. A형간염은 B형 또는 C형처럼 만성 질환은 아니고 대부분 감기처럼 앓다가 항체가 생기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A형간염 항체가 없는 성인이 감염됐을 때는 증상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임상 양상은 더 심각해져 50대 이후 노년기에 감염되면 사망률이 1.8%로 급증한다. 이는 A형간염 전체 평균 사망률 0.4%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치이다. A형간염의 증상으로는 감기 유사 증상(발열, 오한, 두통, 근육통, 피로감 등)으로부터 시작하여 식욕이 떨어지고 복통, 구역질, 구토, 설사, 황달, 우상복부 통증 등이 나타난다. 감기몸살과는 달리 콧물과 기침이 없고 아주 심하게 피로감을 느끼게 되며 더 지나면 소변색이 짙어지므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병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염이 심할 경우 합병증이 발생해 한 달 이상 입원 치료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더

욱이 전격성 간염으로 발전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으므로 예방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개인위생 철저, 간부터 보호하자

A형 간염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날 음식이나 씻지 않은 과일, 오래된 어패류 등의 섭취를 삼가고 물은 반드시 끓여 먹어야 하며 식사 전이나 화장실을 이용한 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는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A형간염은 전염성이 매우 높아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걸리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쉽게 옮길 수 있다. 과거에는 A형간염 환자와 긴밀히 접촉한 경우 예방을 위해서는 면역글로불린 주사를 맞아야 했으나, 위험에 노출된 시기가 2주 이내라면 예방 백신을 맞는 것도 동등한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 따라서 A형간염 항체가 없는 환자의 가족 구성원은 미리 A형간염 백신을 예방접종하는 것이 좋으며, 그 외에도 집단생활을 하는 사람, 혈우병 환자, 의료업 종사자, 만성 간질환 환자 등은 반드시 예방 접종을 하도록 한다. 아직 별다른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철저한 예방이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하고 만성 간질환이 있는 환자에게서 급성 A형간염이 발생할 경우 사망 위험이 증가하므로 평소 간을 건강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움말 | 고려대안산병원 소화기내과 임형준

쌍둥이자매와 곰돌이인형 그리고 어머니와 뽕뽕!



혜지는 척골 골절로 안산병원 정형외과를 방문하고 있다. 어려운 가정형편과 몸이 불편한 가운데에도 혜지에게 큰 웃음을 주는 것은 항상 혜지를 사랑으로 보살펴 주는 어머니, 든든한 오빠 그리고 돌도 없는 단짝 쌍둥이 자매 헤미가 있기 때문이다. 올해 초등학교 4학년에 올라가는 오빠 혜성이는 학교에서 카레이서로 불린다. 친구들과 자동차 경주 게임을 하면 항상 1등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서 항상 인기남이다. 혜성이의 자동차에 대한 관심은 게임에만 그치지 않는다. 자동차를 좋아해서 모형 자동차를 모으는 것이 취미이고 자동차 디자이너의 꿈을 키우고 있다. 또, 엄마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직접 디자인 한 차를 몰고 엄마와 함께 세상을 여행하는 것이 혜성이의 가장 큰 꿈이다. 혜지

와 헤미는 쌍둥이답게 항상 붙어 다니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눈다. 이런 둘 사이에 가장 소중한 것은 얼마 전 선물 받은 곰돌이 인형이다. 혜지와 헤미는 곰돌이 인형과 함께 밥을 먹고 목욕을 시키며 곰돌이 인형에 자신들의 사랑을 듬뿍 담고 있다.

혜성, 혜지, 헤미가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자신들의 꿈과 사랑을 키우는 뒤에는 항상 엄마가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다. 본인의 몸도 불편한 가운데에도 세 남매가 지금의 역경을 이겨 나갈 수 있도록 헌신적인 사랑을 베풀고 있다. 사랑하는 엄마와 세 남매가 즐거운 저녁식사를 통해 앞으로 더 큰 사랑을 키워 나갈길 바란다.



[여행정보]

귀여운 양들과 함께 봄의 싱그러움을 만끽 대관령양떼목장으로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왔다. 추운 겨울동안 가보고 싶은 곳을 못 가고 집안과 실내에서만 보내느라 온 몸이 근질근질 할 정도이다. 이제부터는 날이 풀리며 기온이 올라가길 기다리면서 그 동안 봐 두었던 곳을 하나씩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날이 풀리면 시냇물이 뚝뚝하고 시냇가 탁 트인 곳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번에 소개할 곳은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에 있는 양떼목장이다. 드넓은 초원에 많은 양들을 볼 수 있고 입장료에 포함되어 있는 건초먹이주기체험장을 이용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양을 관찰할 수 있다. 계속되는 언덕과 비포장도로로 둘러보는 동안 약간은 힘든 점이 있다.

목장 입구 주차장에서 차를 세워두고 목장 입구까지 걸어가다 보면 넓게 펼쳐진 산책로가 시야에 들어온다. 산책로는 시계방향으로 크게 돌면서 중간 중간 경치도 구경하면서 나무 그늘에 마련되어 있는 벤치에 앉아서 쉴 수도 있다. 사진도 찍을 있게 경치 좋은 곳에 포토존이 마련되어 있어 좋은 풍경을 담을 수 있다. 대관령양떼목장은 입장료대신 건초(양먹이)를 팔고 있다. 입장료라는 명목으로는 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대관령양떼목장의 주된 관람 목적은 양들에게 건초주기가 아닐까 생각한다. 어린아이에게는 양을 가까이서 볼 수 있어 체험학습에 큰 도움이 된다. 매년 3~4월에는 양들의 털 깎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어 목장을 방문하기에는 최적기가 아닐까 한다.

대관령양떼목장의 입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아이들이 많이 가는 곳이므로 양들에게 이물질들을 절대 주면 안 되고 방목하고 있는 구역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어른들은 흡연을 할 수 없다. 이곳의 유의사항을 잘 숙지하면 양들과 함께 봄의 싱그러움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글·사진 | 원네기자 박준우(시설팀)

[친절리더칼럼]

친절리더팀, 새로운 문화의 가능성을 찾다 고객만족에서 감동까지 모든 것을 책임질 것

고려대 안산병원 친절리더팀은 지난 2005년 10월 출범한 이래 고객만족을 넘어 고객 감동을 창출하기 위해 친절교육, 직원친절도 평가, 병원사랑 캠페인, 친절리더 홍보 활동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해오고 있다. 하지만 전 직원의 적극적인 서비스 마인드 형성과 친절행동 실천이 보다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친절리더의 흥과 열정으로 친절 조직문화가 안산병원 전 부서에 형성되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월 17일 “2010친절리더 활동결의 선포식”을 갖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올 한해 친절리더팀은 조직적이고 효율적으로 활동하기 위해 기존의 팀조직을 친절교육파트, 모니터링파트, 이벤트파트, 홍보파트 등 활동내용별로 세분화하여 교육과 홍보를 한 층 업그레이드했다. 특히 친절리더들이 직접 만든 ‘친절 인사송’은 많은 직원들에게 친절의 의미를 쉽게 이해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자 새로움이 시작될 것이다. 강의와 교육을 통한 친절 뿐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친절을 몸소 실천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문화를 만들어 갈 예정이다.



친절문화를 만들기위해 친절교육파트에서는 외부강사를 초빙, 친절리더 및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마인드 교육을 진행하고, 친절리더 사내강사를 양성하여 부서별 특화되고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시행하여 동기부여를 강화할 것이다. 이는 부서별 특성을 감안해 친절교육안을 세부적으로 작성, 보급함으로써 말로만의 친절이 아닌 행동으로써의 친절을 확산시킬 기회가 될 것이다. 또 다가가는 친절 모니터링을 실시해 고객의 마음 속을 헤아리는 우수부서를 선정, 살아있는 친절 교육이 되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는 교육에서 그치는 친절 보다는 행동하는 친절 문화를 만들으로써 안산병원을 찾는 환자의 만족도를 한 층 업그레이드 시킬 것이다. 또한 모니터링파트와 이벤트파트에서는 현장 중심의 개선을 이루어 가고 행복한 직장 문화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펼쳐갈 예정이다. 특히 환자들이 많이 찾는 외래와 병동의 서비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항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교직원들이 웃음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직장문화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이런 단합된 안산병원 교직원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문화의 장 역시 계획되어 있다. 이는 안산병원 교직원들에게 서로에 대한 배려와 작은 관심을 통해 웃음이 떠나지 않는 직장 문화를 구현, 마음의 여유 속에서 친절이 솟아 나오도록 하기 위함이다.

각종 이벤트와 진행 사업의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서 직원들의 참여도, 관심, 교육의 성과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함으로써 친절리더의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향후 교육 및 행사에 이를 반영할 것이다. 이는 단발적인 친절 교육이 아니라 직장내 친절 문화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료가 될 것이며, 효과적인 사업을 위한 토대를 만드는 작업이다. 또한 이러한 활동들과 더불어 친절리더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친절리더 팀장을 비롯한 각 파트장의 지속적인 모임, 원내 커뮤니티 등을 통해 친절리더팀의 사업 방향과 진행사항 등을 꾸준히 논의할 것이며 친절리더팀 Workshop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친절은 마음에서 부터라고 한다. 마음부터 우러나오는 친절함이야말로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배려의 시작일 것이다. 2010년 친절리더팀은 모든 교직원의 마음을 감동시켜 또 다른 문화를 만들어, 새로운 병원문화의 첨병으로써 큰 역할이 기대된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외래진료 시간표

1 * : 선택진료의사

1 대표전화 : 1577-7516

1 인터넷예약 : <http://ansan.kumc.or.kr>

1 응급의료센터 : 031) 412-5381

1 기준 : 2010년 3월 19일

과별(전화)	의사명	오전	오후	전문진료분야	과별(전화)	의사명	오전	오후	전문진료분야		
내과 ☎5010	소화기	*최재현	월,목	대장·소장질환, 치료내시경	정신과 ☎5140 (:클리닉)	*한창수	화,목	월,화	우울증,스트레스,기억력클리닉,치매		
		*이상우	화,금	화		위·식도·소장질환,소화관운동질환,치료내시경	*김용구	월,수	월,수	우울,불안증,공황장애,정신분열증,스트레스,알콜중독	
		*임형준	월,화,목	화,목		간(간염,간암,간경변)	*고영훈	월,수	월,수	정신분열증,여성정신의학,뇌손상후유증,알콜중독,약물	
	*구자설	목	월,목	대장·소장질환, 치료내시경(토요일:3주)		*윤호경	금	목,금	기분장애,적응장애,수면장애		
	*정성우	월,수	수	위·식도질환,소화관운동질환,치료내시경(토요일:1주)		일반의	금	목,금	정신과질환		
	*김정한	수,금	수	간염,간암,간경변(토요일:2주)		신경과 ☎5150	이대희	월,화,수	월	간질,파킨슨	
	*김진남	화	월	소화기질환,담도,췌장질환(토요일:4주)			*박문호	월,수,목	수	뇌졸중,치매(목 오전-치매 재진환자만 진료)	
	*김승영		금	소화기질환(토요일:4주)			*권도영	화,목	월,목	파킨슨,이상운동장애(화 오전-파킨슨 재진환자만) 두통,어지러움,간질	
	순환기	*송우혁	화,목	월		협심증,심혈관중재술,고지혈증,고혈압,심근경색,(홍통클리닉)	안과 ☎5160 (:클리닉)	*백세현	월	월,목	*안성형(눈물질환(레이저수술),안과골절,외안,중앙,갑상선,안검내반,안검하수),건선안,망막,백내장,녹내장 *마용성형(쌍꺼풀·눈꺼풀치교정,주름제거(레이저,보톡스,필러주입)) (안성형(안검,안와,누기),미용성형,녹내장클리닉-월,목 오후)
		*안정천	수	수		협심증,심혈관중재술,고지혈증,고혈압,심근경색,(홍통클리닉)		*김승현	화	금	사시,약시,소아,녹내장,신경안과,(사시,소아,신경,약시,녹내장클리닉)
*김성환		월	목,금	심장판막질환,심부전증	*김성우	(수),목,금		화	망막(당뇨,고혈압성,미숙아),포도막,백내장,녹내장(수오전예약환자)		
*임상엽	월,금	수	협심증,심혈관중재술,고지혈증,고혈압,심근경색,(홍통클리닉)	송종석		금		각막,백내장,시력교정술,콘택트렌즈			
*김승현	목	월,화	고혈압,심장판막질환,심부전증	김수이	수	수		망막,백내장			
호흡기 (:클리닉)	신철	수	(월,수)	수면장애(수면무호흡,코골이,기면증 등),폐질환,수면클리닉-월,수오후	이화		수	백내장,안성형			
	*김제형	월,목	화,목	호흡기질환	이비인후과 ☎5170 (:클리닉)	*권순영	화	화,목	두경부암,갑상선암,인후두질환,음성장애		
	*정기환	화,금	금	결핵,폐렴,기관지내시경,만성폐쇄성폐질환,폐암		*이승훈	(해 외 연 수)		코골이,부비동염,코성형,소아수면무호흡증,후각장애		
*차대룡	월,수,목	수	신장이식,사구체신염,부종,투석	*최준		월,금	(금)	만성중이염,어지러움,소아난청,안면마비,이명,귀종양(어지럼클리닉-금오후)			
신장	*강영선	화,금	화,목	사구체신염,부종,투석,이식	*최지호	화,목,(금)	목	부비동염,수면무호흡증,알레르기비염,코성형(수면클리닉-금오전)			
	차진주	월,금	월,금	부종,투석,혈뇨당뇨	*김은중	월	월,수	알레르기비염,코성형,부비동염,수면무호흡,후각장애			
내분비	*김난희	월,수,목	월	당뇨,갑상선,비만,골다공증,뇌하수체	홍석진	수,토	월	음성장애,갑상선종양,두경부양성종양(토:2,4주)			
	*서지아	화,목,금	화	당뇨,갑상선,비만,골다공증,뇌하수체	일반의	토	수	이비인후과질환(토요일: 1,3,5주)			
	은재영	수	수,목	당뇨,갑상선,비만,골다공증,뇌하수체	피부과 ☎5180 (:클리닉)	*김일환	월,화,목,금	(목)	여드름,박피,액취증,모발,피부암,백반증,레이저치료(목오후-레이저클리닉예약만) 금요일오전진료는 1주,4주,5주만진료가능,2주,3주 금요일은진료없음		
*박대원	월,수,목	목	열,열병,염증성질환	*손상욱		월,목	월,목	아토피,피부미용,알러지성피부질환,구강점막질환			
최원석	화,금	월	열,열병,염증성질환	최재은		화,금	화,수,금	미용피부외과,알러지성피부질환,구강점막질환,베제트(토:5주)			
중앙혈액	*최인근	화,금	월	중앙질환,혈액질환,항암치료	일반의	수,토	월,화,수,금	광선치료,건선,백반증,알레르기(토요일:1주-4주)			
	*성화정	월,수,목	화	혈액암,중앙,혈액질환,항암치료,빈혈	비뇨기과 ☎5190 (:클리닉)	*박홍석	월,목	월	중앙,전립선		
류마티스	*최성재	수,금	월,수	류마티스 질환		(해 외 연 수)			복강경수술,요실금,여성배뇨장애		
내과일반	일반의	토	월~금	일반진료		*최훈	금	화,수,금	배뇨장애,결석,요실금,내비뇨(복강경)		
상부 위장관외과 ☎5030	*김승주	목	월	위암,상부위장관,탈장	강성구	화	목	남성학			
간담체외과☎5030	*박성훈	금	화	위암,상부위장관,탈장	장훈아		목	소아배뇨,야뇨			
	*김종한	수	금	위암,상부위장관,탈장	일반의	수		일반비뇨기질환			
대장항문외과 ☎5030	*송태진	월,금	월	간,췌장,담도질환,장기이식,혈관	재활의학과 ☎5330 (:클리닉)	*김동휘	월,수,(목)	목	뇌졸중,말초신경병증,언어및 인지재활,통증(목:오전 통증클리닉예약환자 -두통,흉통,복통)		
	*한형준	월	월	간,췌장,담도질환,장기이식		*황미령	화,금	월,수,(금)	소아재활,척추손상,전기진단,통증,심폐질환(족부클리닉-금 오후 격주)		
	*엄준원	화	목	대장항문학		김리나	목	화	스포츠의학,족부,족관절통증,견관절통증,요통		
유방내분비외과 ☎5030	*민병욱	수	월	대장항문학	일반의		금	재활의학과 일반			
	류제석	토	금	대장항문학(토:2,4주)	가정의학과 ☎5360	김도훈	월,금	수	건강증진,만성질환관리,노인병		
	한기빈		월,금	대장항문학(금:2,4주)		김민지	목	월,금	금연,비만,여행의학		
*손길수	월	수	유방,갑상선,내분비학	신유나		화,수	목	금연,비만,여행의학			
정형외과 ☎5040	류유상	토	화	유방,갑상선,내분비학(토:1,3,5주)	일반의		화,수	건강증진			
	*김성곤	월	수	인공관절	치과 ☎5370	*류재준	화,목,금	월,금	심미보철,임프란트,가철성치		
	*박정호	수	월	어깨팔꿈치관절,스포츠의학		(해 외 연 수)			구강악안면 외과,임프란트외과		
	*박종용	화,목	화	수부외과,미세재건외과,족부		강정경	월,화,목	화,목,금	심미보철,가철성치,임플란트		
	*서동훈	수,금	화	고관절	임영신	월,수,금	월,화,수,목	보존과			
*배지훈	화,목	금	무릎관절 인공관절,무릎인대손상,골다공증	이의석		화	구강악안면외과				
신경외과 ☎5050 (:클리닉)	홍재영	월	수,목	척추질환,소아	일반의	수	월,화,수	치과 일반			
	전우주		화,금	수부	응급의학과 ☎5381	이성우	화,금	화,금	중환자의학,중독학		
	*박정욱	월,(화),목	(화),수	정위기능, 뇌종양, (화요일-종일클리닉)		문성우	월,목	월,목	응급치치,중독학		
*임동준	화,목	(화)	뇌혈관질환,뇌졸중,두통,뇌종양(뇌혈관클리닉-화 오후)	조영덕		수	수,토	응급의학			
흉부외과 ☎5060	*김세훈	수,금	월	퇴행성 및 외상성 척추질환 및 중앙	산업의학과 ☎5390	박종태	화,목	화	보건관리,직업성질환,환경의학		
	*김삼대	(화)	화,목	뇌종양,소아뇌질환,중증뇌손상(소아클리닉-화 오전)		전형준	월,수,금	월	건강진단,만성통증,임상예방의학		
	일반의		금	신경외과 일반		일반의	월,수,금	월	산업의학과 일반		
성형외과 ☎5070	이인성	수,금	수	선천성 심장수술,일반 흉부수술	영상의학과 ☎5220	*차상훈	월,화,수,금	수	복부,비뇨생식기계		
	*박형주	월	월	오목가슴,폐암,식도암,선천성 심장수술,일반흉부수술		*김백현	월,수,금	월,목	골,관절,척추,사지혈관		
	*신재승	화	화	관상동맥질환,대동맥질환,심부전증		*이기열	화,수	화	흉부		
*조원민	목	목	심장판막질환,부정맥수술,말초혈관질환수술,다한증,최소침습수술	*정환훈		수,금	수	중재,복부			
*정진용	수,금	수,금	기관,식도,다한증,폐질환,흉강경수술,하지정맥	서보경		월,화,금	수,금	유방			
산부인과 ☎5080 (:클리닉)	일반의		금	일반진료	이영흔	(해 외 연 수)		신경두경부,갑상선			
	*윤율식	월,목	목	유방,체형교정,미용(눈,코,안면주름),선천성기형,수부재건	이승화	목,금	목	중재,복부,심장			
	*동은상	화,금	화	코성형,주름성형,악안면성형	제보경	화	화,금	소아			
	*김덕우	수	월,수	미세수술,지방흡입,안면성형,귀성형	서형석	월,화,목	화,목	신경두경부,갑상선			
	일반의		금	성형외과 일반	이근영	월,화,목	화,수,금	골,관절,척추			
소아청소년과 ☎5090 (:클리닉)	김해중	화,(수)	목,(수)	고위험임신,주산기질환(정밀초음파클리닉-수요일종일)	염석규	월,수,목	월,화,수	복부,비뇨생식기계			
	*이낙우	월,목	(화)	부인과 중앙,복강경수술(질확대클리닉-화 오후-예약)	방사선 종양학과 ☎6850	윤원섭	월,수,금	월,수	방사선 중앙학		
	이경옥	수	월	불임,폐경기질환,부인과내분비질환,복강경수술(불임클리닉-예약환자만)		통증클리닉 ☎6744	*양종윤	월,화,수,금	월,수	통증치료(신경병성,대사포진,요통클리닉)	
	김재원	금,토	수	부인과중앙,일반부인과,복강경수술(토요일:3,4,5,6월)							
	정현철	금	화	주산기질환, 일반부인과(토요일:11,12,1,2월)							
윤영선	수,금	수,금	주산기질환, 일반부인과(토요일:7,8,9,10월)								
소아청소년과 ☎5090 (:클리닉)	*이정화	월,목	화,(목)	면역,천식질환(면역·천식클리닉-목 오후)							
	*최병민	화,(금)	금	신생아(신생아클리닉-금 오전)							
	*우찬욱	수	(화),수	혈액종양(클리닉-화 오후)(토:5주)							
	*장기영	화,목	(화),(목)	심장(클리닉,심장초음파-화오후)(심,초-목오후)(토:1주)							
	*김윤경	(해 외 연 수)		감염,예방접종(예방접종클리닉-화 오전)							
*은소희	수,금	(월),수	간질,발달장애,두통,소아신경,(소아뇌·신경클리닉-월 오후)(토:2주)								
이영준	월	월,(수),금	내분비,성장,비만,유전대사(클리닉-수 오후)(토:3주)								
임형은	금	월,목,(금)	신장,위장관(클리닉-금 오후)(토:4주)								
일반의		화,목	일반 소아과								